

Issue Comment

2022. 7. 28

재생에너지 조 맨친의 결심, 그 영향은?

● 유틸리티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조 맨친, 드디어 경기 부양안에 합의

그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정책 이벤트였던 에너지 투자 확대 법안(i.e. Inflation Reduction Act, 이전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수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크게 증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 법안은 총 4,330억 달러의 투자 중 3,690억 달러를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할당. 작년 논의 되던 5,55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예산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투자

언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차주 미국 상원에서 투표를 거칠 예정. 상원에서 통과될 시 8월 여름 휴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 역시 8월 즉시 소집이 가능.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의 반대 등 법안이 좌초될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나 크진 않음. 8~9월 중 최종 통과 가능성성이 높다는 판단

태양광보다는 풍력. 2022년보다는 2023년에 주목

법안의 기후 예산은 태양광, 풍력에 대한 세제혜택(PTC, ITC)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대당 4,000~7,500달러)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임

미국 EIA는 7월 Annual Energy Outlook을 통해 세제혜택의 영향을 분석. 일몰(Sunset) 시나리오는 PTC, ITC가 2021, 2022년 이후로 종료되었을 때, 연장(Extended Credit)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연장했을 때를 가정.

연장 시나리오에서 2050년 풍력 발전량은 일몰 시나리오 대비 23.8% 증가,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율은 12.8% 증가할 것으로 분석. 풍력의 수혜 정도가 태양광보다 크다는 결론.

8~9월 통과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시 약 4~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연말부터 풍력 기자재 업체의 수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 풍력 터빈사들의 선제적인 발주가 이루어질 경우 영향을 받는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으나, 2022년 실적보다는 2023년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

2Q22까지 풍력 터빈사, 풍력 부품 업체들의 실적 흐름은 급격한 개선세를 보이기 어려움. 1Q22 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이 풍력 산업에 대한 매수 적기라고 판단.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 불확실성 및 원자재 가격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2023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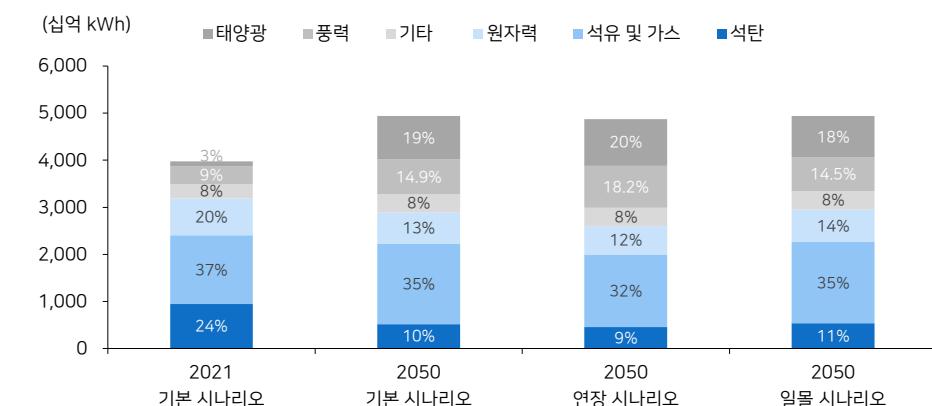
표1 Inflation Reduction Act 내용 요약

항목	금액(단위: 십억 달러)
총 세입 증가	739
15% 최저 법인세율 도입	313
처방약 가격 개혁	288
IRS 세금 집행	124
성과 보수 관련 Loophole 개정	14
총 투자	433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369
의료 혜택 연장	64
총 적자 감소	300

주: 조세공동위원회 및 의회예산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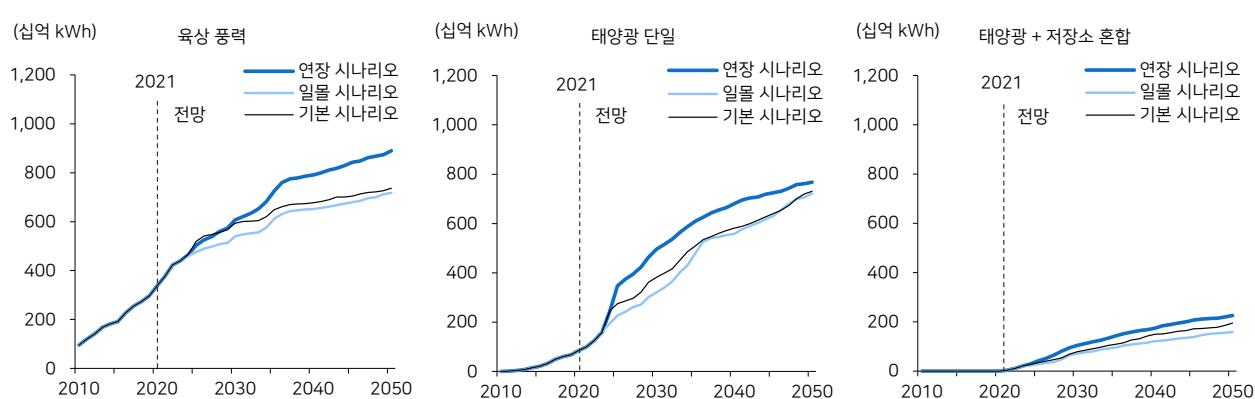
자료: 미 의회 조세공동위원회 및 의회예산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세제 혜택 연장 여부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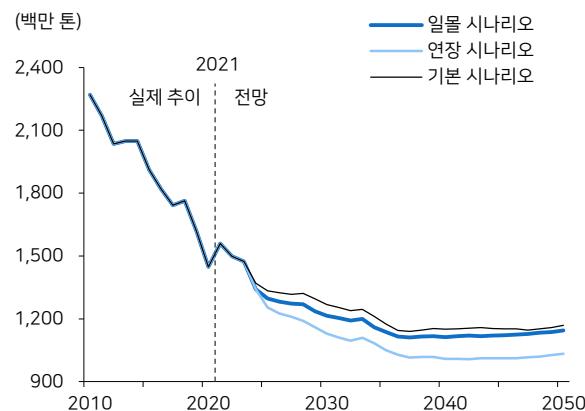
자료: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세제 혜택 연장 여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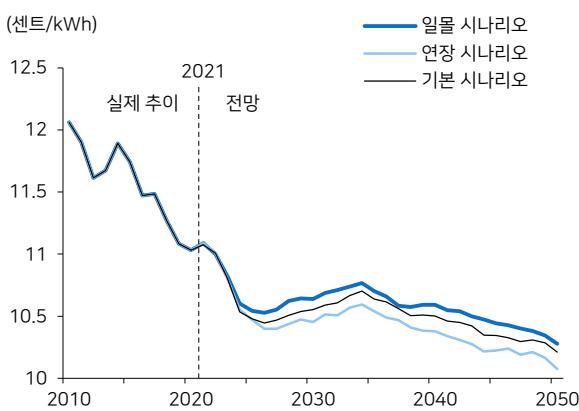
자료: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세계 혜택 연장 여부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전망



자료: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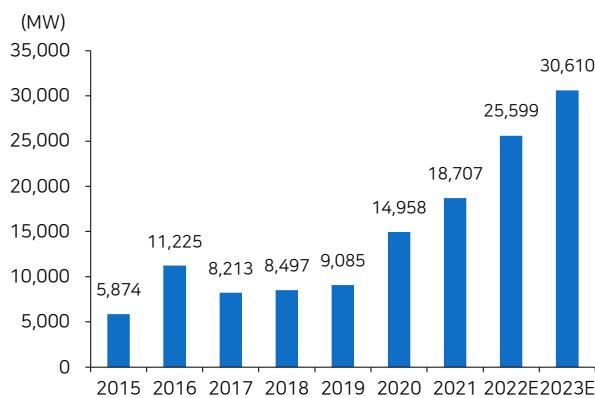
그림4 세계 혜택 연장 여부에 따른 전기 요금 전망



주: 2021년 화폐 가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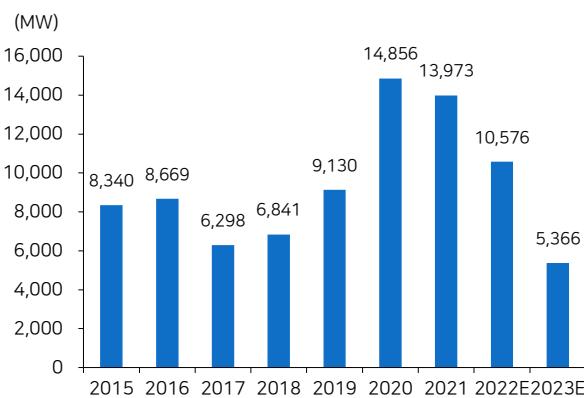
자료: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EIA 미국 태양광 설치량 전망



자료: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EIA 미국 풍력 설치량 전망



자료: EI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